

[어법 수능기출 문제] 정답 및 해설
- 맞춤법, 고쳐 쓰기, 올바른 문장 -

1. ㉠'흥건이'는 틀린 표현. '흥건히'가 맞는 표현. 답 ㉠
2. '어쨌든'이 바른 표기이다. 답 ㉠
3. ㉠설것이→설거지, ㉡찌게→찌개, ㉢텔레비전→텔레비전, ㉣계시든→계시던 답 ㉢
4. ㉠은 한 종류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는 것이므로 '구분'에 해당한다. ㉡~㉤는 두 대상의 차이를 분간하여 인식한다는 의미이므로 ㉠에 해당한다. 답 ㉠
5. 다리다 : (옷이나 천 등을 다리미로) 눌러서 문지름으로써 구김살을 펴지게 하다. 달이다 : (한약 따위를) 물에 넣고 끓여서 우려나오게 하다. 답 ㉠
6. 같은 한자가 들어 있어 의미상의 공통점은 있으나 분명한 의미 구별이 있는 한자어들이다. '식별 : 알아서 구별함', '분별 : 서로 다른 것을 따로따로 가름 또는 돌아가는 형편을 헤아려서 앎' 따라서 '식별'과 '구별'은 서로 바꾸어 사용해야 함. ㉠'금방 : 이제 곧'의 의미로 미래 시제를, '방금 : 바로 이제'의 의미로 과거 시제를 지닌다. ㉡'구조 : 구하여 줌', '구원 : 도와 건져 줌 또는 인류를 죄악과 고통에서 건져 냄' ㉢'당황 : 놀라거나 다급하여 정신이 어리둥절함(어쩔 줄을 모름)', '황당 : 거칠고 허황함' ㉣'변환 : 달라져서 바뀜', '변천 : 변하여 바뀜' 답 ㉤
7. '칫솔질'은 '치(齒)'라는 한자와 '솔질'이라는 순 우리말이 합쳐진 것이며, 뒷말의 첫소리 '솔'이 된소리 '솔'로 발음되므로 제30항 2-(1)에 해당한다. 답 ㉢
8. '삼촌'은 어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양성 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는 경우에 해당한다. 답 ㉣
9. ㉠과 ㉡의 문장이 연결된다면 ㉡의 '시늉'은 '공부를 하는 척하는 행동'을 의미한다. 즉, '시늉'의 대상은 '장사꾼'의 행동이 아니라 공부이다. ㉢'조장'은 '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부추김'이란 의미를 나타낸다. 답 ㉢
10. '㉢그쪽'은 아버지의 책을 부탁받는 당사자이다. '㉣당신' 역시 같은 대상이다. ㉠ '㉠내'는 '㉡나'와 같은 1인칭 대명사이다. '㉠내'는 '가'라는 주격 조사 앞에 쓰이고, '㉡나'는 은/는 앞에 쓰인다. '내'가 '나의'의 줄인 말로 쓰이는 경우는 '내 물건'과 같은 사례에서이다. ㉢ '㉢우리'는 바로 아버지의 책을 부탁하고 있는 '나'를 포함한 '나의 형제자매들'을 가리킨다. 그렇기에 '㉡나'를 포함할 수 있다. 하지만 '㉢그쪽'은 내가 부탁하고 있는 당사자이므로 우리에게 포함되지 않는다. ㉣ 앞 문장에 나온 말을 반복할 때 대명사를 쓰는 것은 맞다. 하지만 반드시 대명사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니며, 또한 그 대상이 혼동되지 않고 분명할 때만 대명사를 쓸 수 있는 것이다. 현재의 '㉢아버지'를 '당신'이란 대명사로 바꾸어 쓸 수도 있지만, 현재의 쓰임이 어색한 것은 아니기에 반드시 바꾸어 쓸 필요는 없다. ㉤ '㉤당신'은 높임의 재귀대명사로 적절하게 쓰였다. '자기'는 '아버지'와 같은 명백한 높임의 대상에게는 쓸 수 없다. 답 ㉡
11. '미연(未然)'은 원칙적으로 '미연에' 꼴로 쓰여 '어떤 일이 아직 그렇게 되지 않은 때'를 의미하는 어휘이다. 따라서 '결합되는 조사의 종류'의 측면에서 볼 때 '에' 외의 조사와는 결합하지 않는 '극비리'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어휘이다. 답 ㉠

12. <보기>에 제시된 '-되다¹'은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'피동'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접미사이다. 따라서 능동인 '이루거나 만들다'의 의미를 더한다는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. '-되다²'은 일부의 명사나 어근, 부사 뒤에 붙어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로서 해당하는 명사와 용언의 어근, 부사가 의미하는 상태나 성질을 갖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. 따라서 바뀌거나 변화한다는 의미를 더한다는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. 답 ⑤

13. 제19항의 붙임에서 어간에 '-이'나 '-음'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이를 토대로 ⑤의 '마개'를 분석해 보면 '막+애⇒마개'가 된 것이기에 어간에 '애'가 결합된 것임을 알 수 있다. 즉, '마개'는 원래 어간의 뜻과 떨어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것이 아니라, 제1항 [붙임]의 사례와 같은 이유로 해서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것이다. ① '-이'가 널리 쓰이는 접미사이며, 의미 또한 어간의 뜻과 떨어지지 않았기에 원형을 밝혀 '떡이'로 적는 것이다. ② 장신구로서의 '목걸이' 또한 '-이'가 결합되었고, 어간의 뜻과 떨어지지 않았기에 원형을 밝혀 적었다. ③ '마중'에서 '-옹'은 널리 쓰이지 않는 접미사이면서 동시에 '-이'나 '-음' 이외의 모음이 결합되어 품사가 바뀐 것이다. 그러므로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것이다. ④ '갈이'는 '-이'나 '-음'이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이며 어간의 뜻도 유지하고 있기에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. 답 ⑤

14. ① 주어의 누락 : 우리가 한글과 세계의 여러 문자들을 비교해 볼 때, (주어 누락 - 한글이) 매우 조직적이며,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라고 하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.

② 어미의 누락 : 그가 오락에 몰두하는 것은 단순히 즐기기 위해서(어미 누락 - 라기)보다는 현재의 피로움을 잠시나마 잊어 보려는 행동에 불과하다.

④ 주어의 누락과 일본어식 표현 : (우리는) 과학적 인간관과 인식론(이) 인간과 인식에 관한 유일한 가정처럼 받아들여지는 (것에 우려하고 있다.)

⑤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: 한 나라의 영화 정책은 당연히 자기 나라 영화의 보호와 진흥을 목적(에 맞추어 집행되어야 한다.) 답 ③

15. ② 의미의 중복 : 오늘도 어김없이 바람 부는 날인데도 노인은 외출할 (생각을 하였다).

③ 목적어의 누락 : 그녀는 자신이 이기적인 줄을 알면서도 (이기적이라는 말을) 남에게서는 무척 듣기 싫어한다.

④ 조사의 오용 : 회원 각자(가) 현재의 자기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.

⑤ 어휘의 오용 : 그의 얼굴에 나타난 감정은 누구에게도 감출 수 없는 사랑의 (감정)이었다. 답 ①

16. ㉠에는 '이'를 점잖게 이르는 말인 '치아'를 사용해야 하며, ④에서도 '나이' 대신에 연세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. ① '사장님께서'는 이중 높임. ② '과반수 이상'은 의미의 중복, '과'가 '이상'의 의미를 지님. ③ '막연한'이 아니라 '막역한'임. ⑤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 안됨. '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싣고'로 고쳐야 함. 답 ④

17. ① 조사와 서술어의 오용 : 사회 복지란 모든 국민들(이) 인간다운 생활을 (보장받고), 안락하게 사는 상태를 말한다.

②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잘못됨 : 우리가 인체를 탐구하는 것은 그 속에 인간을 창조한 모든 비밀이 숨어 (있기 때문이다.)

③ 외국어투의 잘못된 피동 표현 : 미술 작품은 그 표현 형식과 내용(을 이해해야 바르게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.)

④ 부적절한 열거 : 모든 개인은 환경에 관한 정보에 대해 (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고)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. 답 ⑤

18. '회의'와 '말씀'은 높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'계시다'가 아니라 간접높임에 해당하는 '있으시다'로 표현해야 한다. ② 또한 첩수가 높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'오시래'가 아니라 '오라셔(오라고 하셔)'가 맞는 표현.

① '가르쳐'가 아니라 '가리켜'가 옳은 표현. ③ '서울역전 앞'은 의미의 중복. ④ '외식 먹으러' 역시 의미의 중복. ⑤ '너네'는 '너희'로, '너'는 '네'로 고쳐야 함. 답 ②

19. 수나 분량의 경우에는 '늘리다', 길이나 넓이의 경우에는 '늘이다'를 사용하므로 ④는 올바른 표현이다. ①은

'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실어'라고 써야하고, ②는 '우리 모두의 바람'이라고 표현해야 한다. ③은 '돈이 너무 적어'로 써야 하며 ⑤는 '김장을 직접 담가'로 써야 한다. 답 ④